

해리성 대동맥류 51례에 대한 고찰

인제 대학교 부속 서울 백병원 흉부외과학 교실
정철하. 구본일. 오상준. 이신영. 이홍섬. 김창효

해리성 대동맥류

인제대학교 부속 서울백병원 흉부외과학 교실에서는 1987년 1월부터 1992년 9월까지 해리성대동맥류로 51례가 진단받고 치료받아오며 연령별분포는 21-40세가 10례, 41-50세가 10례, 51-60세가 17례로 가장 많았고, 61-70세가 7례, 71세 이상이 7례였다. 남자는 35례, 여자는 16례였다. 51례중 20례는 수술하였고 나머지는 내과적치료및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였다. De Bakey 1형은 15례였고 이중 5례는 수술을 시행했고 De Bakey 2형은 8례로서 전부 수술을 시행했고 De Bakey 3형은 28례로서 이중 7례에서 수술을 시행하였다. 임상증상으로 고혈압이 31례 (61%), 신부전은 11례 (22%), 뇌졸중은 9례 (18%), 대동맥판막폐쇄부전증은 9례 (18%), 심부전은 5례 (10%), Marfan's syndrome은 5례였다. 해리가 시작되어 수술까지의 시간간격은 2주이상 많았는데 이것은 수술받은 20례중 15례가 타병원에서 전원된 경우였다. 수술방법은 인조혈관치환술이 1형, 2형에서 7례, 3형에서 5례였고, 인조혈관치환술및 대동맥판막치환술이 1, 2형에서 3례, 인조혈관치환술및 resuspension이 3례였다. 사망은 수술받은 20례중 3례였고 2례는 pump weaning failure, 1례는 술후 2일째 대동맥류 파열로 사망하였고, 비수술례 31례중 9례가 사망하였고 5례가 대동맥류파열, 3례가 신부전, 1례가 호흡부전이었다.